

동북아미래포럼 조찬 연설문

-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 -

2009.12.2(수) 07:00
조선포털 코스모스바이올렛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미래포럼에 저를 초청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관계, 학계와 재계 그리고 NGO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라는 주제 하에, △ 최근 북핵문제의 현황 및 평가와 함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북핵문제 현황 및 평가

북핵문제는 20년 전인 1989년 영변 핵시설의 활동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93년 1차 핵위기와 94년 제네바합의, 2002년 2차 핵위기에 따른 6자회담 개시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등을 거치며 북핵문제 전개 과정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북핵문제의 그간 경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 및 평가】

작년 하반기에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이 정체된 와중에, 북한은 금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연이은 도발을 강행하고 6자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4월)과 안보리결의 1874호(6월)를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단호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억류인사 석방, 조문단 파견, 이산가족 상봉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해 일련의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은 미-북 양자대화의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래 미-북 대화의 조속한 개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양자대화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 12.8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북 대화 후 다자대화로 복귀할 용의를 보였다고 해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 9.3 유엔 안보리 의장앞 서한을 통해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시험 등 핵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1.3에는 8,000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이미 8월말까지 끝내고 무기화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7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12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앞서 먼저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 미-북간 적대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로 유도해 가면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제거를 주장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난 11.19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미-북 양자대화를 앞두고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확인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북핵문제 관련 논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양국 정상은 우선 한-미 양국 간에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루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한 후 대화에 복귀하면서 양보를 얻어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시한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 방식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은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한-미 공조는 앞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북 접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북 대화 전망】

북한이 미-북 대화의 결과를 보고 6자 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하면서 미-북 양자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여러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미-북 접촉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수순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한다든지, 한-미 양국 및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재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5자간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5자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북핵정책 방향

그러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wo-Track Approach】

첫째, 우리 정부는 안보리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two-track approach 정책을 유지해 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북 양자대화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가 성급하게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도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후, 결국 2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관계를 맺어온 인접국이자 북한의 최대지원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자신의 방북시 북한에 약속한 지원이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도 안보리결의 이행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 표시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대화 복귀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단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

둘째,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주요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이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자 모두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6자회담 과정을 통해 참가국들은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축적해 온 만큼, 이러한 자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입장을 바탕으로 5자는 미·북 양자대화가 어디까지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의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괄타결방안 추진】

셋째,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2.13, 10.3 합의 사항들을 파기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5자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이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5자간의 공통적인 상황 인식이 우리 정부가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온 배경이자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과 5자의 정치·경제적 상응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하여 단일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일괄타결된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 계획이 포함될 것이며, 합의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지만, 이행은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일괄타결방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넷째,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미-북간이 아니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9.19 공동 성명에 명시된대로 직접 당사자들간에 6자 회담과 구별되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으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입니다.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도 한국전쟁이 미-북간에 치러진 전쟁이라는 북한의 정치 선전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무실화하려는 기도로 생각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 및 역할이나 핵우산과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논의될 수 없으며,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 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다섯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한과 협력하며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북 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와는 경제협력 문제만을 논의하고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안보문제는 미국과만 대화하려 하는데, 북측의 이러한 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족적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 결심을 보여주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맺는 말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협상이 비록 시간이 걸리고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은 물론 일·중·러 5자간의 공감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저버리고 도발을 반복해온 결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5자간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관련국들간의 공조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한, 외교적 노력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국민적인 이해와 역량의 결집입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력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그러한 노력을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